

All Cross-Type 45 Point AF

1. AF 포인트가 많으면 구도 잡기가 편해집니다

EOS 80D의 뷰파인더를 보면 무려 45개의 AF 포인트가 넓게 퍼져 있습니다.
보통 캐논의 보급 기종이 19개의 AF 포인트가 있으므로 두 배가 넘는 차이입니다.

AF 포인트가 많으면 웃는 아이, 뛰는 강아지, 멋진 풍경 등 **사진에서 가장 중요한 구도를 손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촬영하고자 하는 피사체가 화면 중심에 있다면 중앙 AF 포인트로 찰칵, 화면 바깥쪽에 있다면 원하는 위치의 AF 포인트로 촬영하면 됩니다.

만약 기존의 DSLR 카메라로 중앙 AF 포인트만 고집했다면, EOS 80D는 45개의 모든 AF 포인트를 마음껏 즐겨 사용하면 됩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5.6 / Tv: 1/200s / ISO: 200 /
핸드헬드

- 아이의 오른쪽 눈에 **1포인트 AF^{*1}**를 실행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 보통 인물 촬영 시에는
다수의 AF 포인트를 쓰지 않고
하나의 포인트로 정확히 원하는
곳에 초점을 실행합니다.

*1 포인트 AF

'1포인트 AF'란 AF 선택에서 '수동 선택: 1포인트 AF'를
뜻함 (TIP 참조)

All Cross-Type 45 Point AF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5.6 / Tv: 1/800s / ISO: 100 /
핸드헬드

오른쪽 주변의 1포인트 AF로
갈매기의 다리 부분에 초점을
실행하여 촬영한 사진입니다.

갈매기의 몸통이나 머리 쪽이
아니면 초점을 잡기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45개의 모든
AF 포인트는 피사체에 선만 있으면
AF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TIP

45 포인트 AF를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 1) C.FnII: 자동 초점 메뉴에 들어간 다음 14번 포커싱 중 AF 측거점 표시를 1: 전체(일정)으로 변경합니다. 해당 기능으로 설정하면 뷰파인더 속에 45개의 모든 AF 포인트가 보입니다. 이로써 사용 중인 AF 포인트의 위치 파악이 쉽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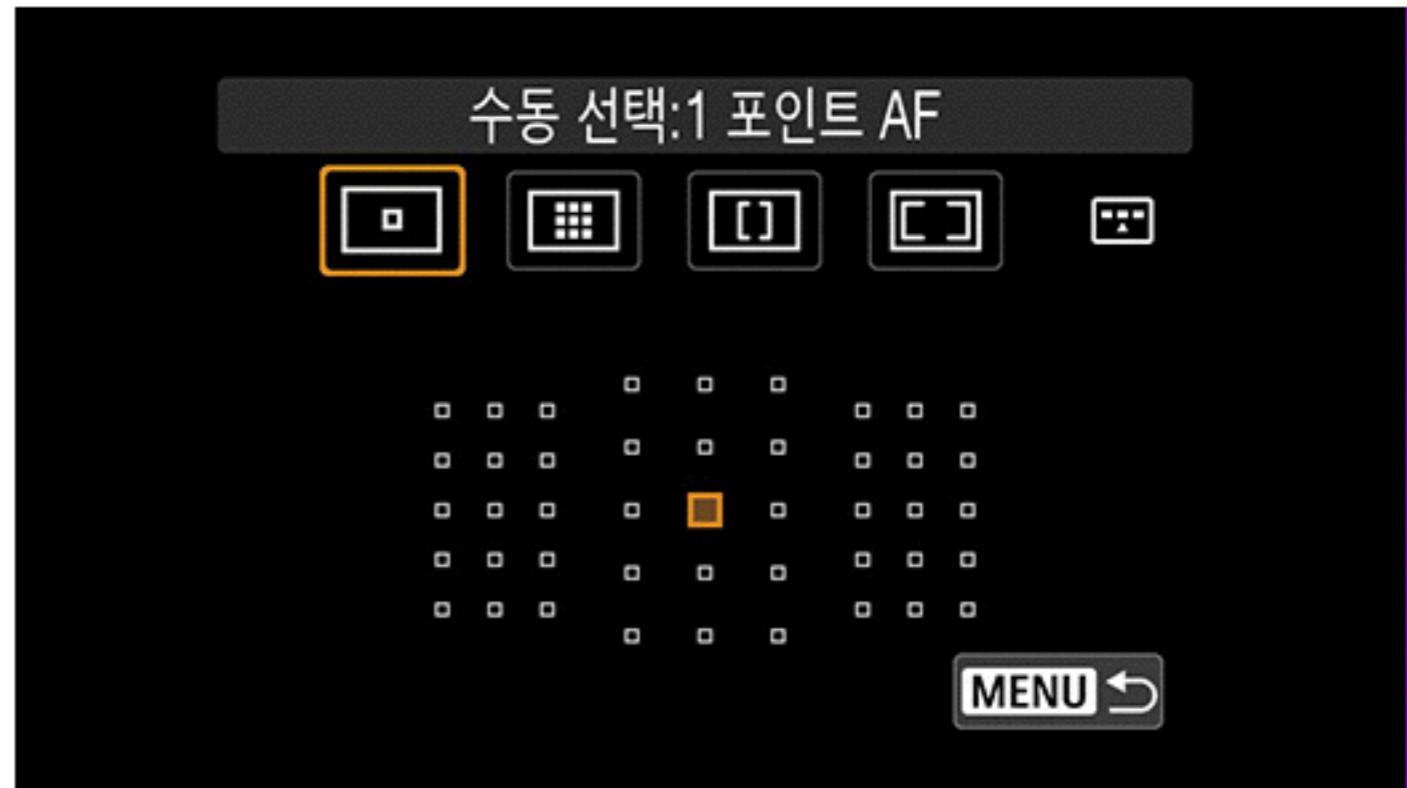


All Cross-Type 45 Point AF

TIP

45 포인트 AF를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2) AF 영역은 대부분 장면에서
수동 선택: 1포인트 AF를
추천합니다. 나머지 AF 영역은 1
개의 AF 포인트로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움직이는
피사체에 주로 사용합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TIP

45 포인트 AF를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3) AF 포인트의 위치를 재빠르게 이동하고 싶을 땐 먼저 AF 포인트 선택 버튼을 누릅니다.
그 다음 가로 방향은 메인 다이얼, 세로 방향은 퀵 컨트롤 다이얼만 돌리면 빠르게 AF 포인트가 이동합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2. AF 포인트가 모두 크로스면 초점 잡기가 쉬워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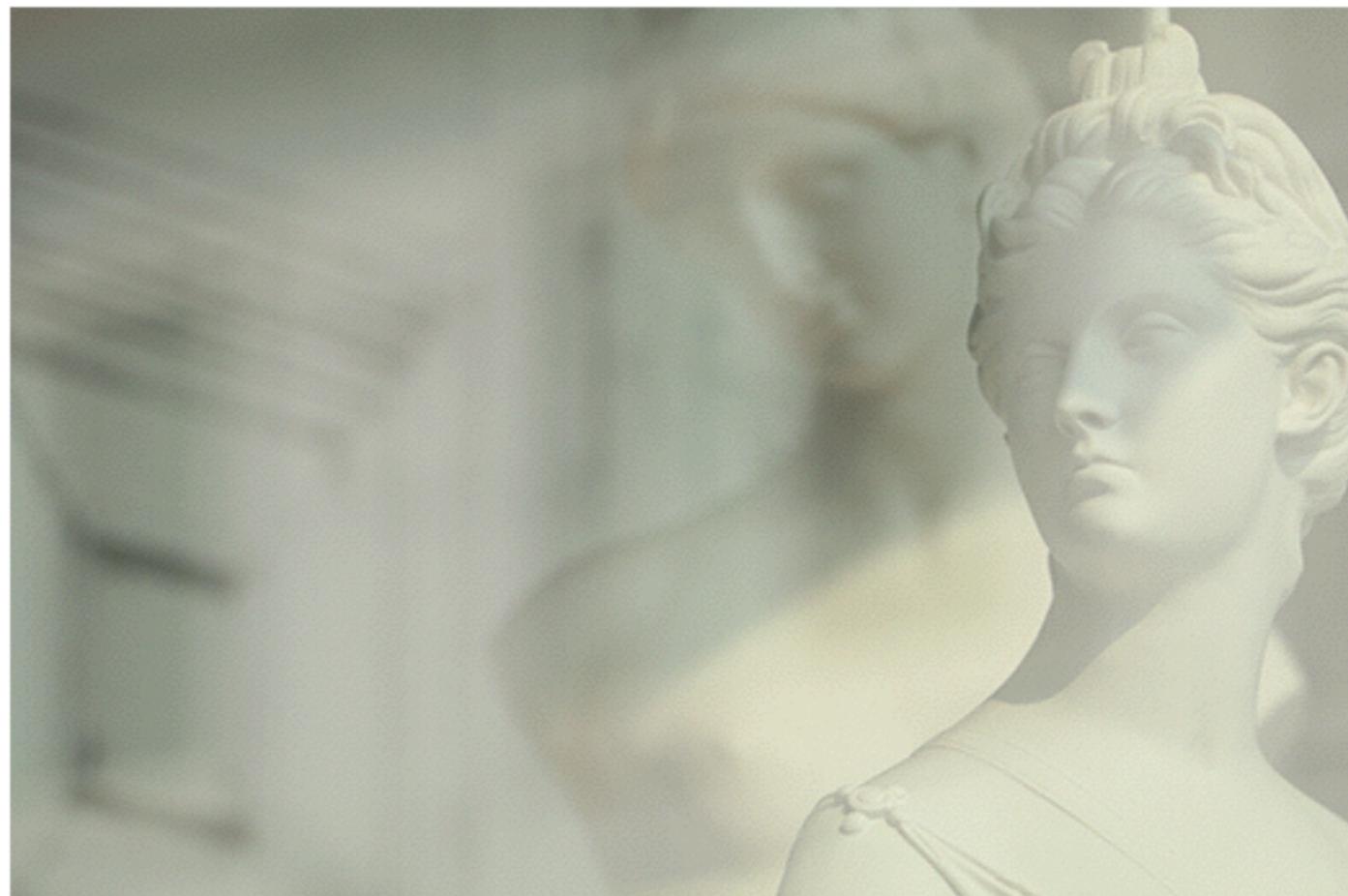
AF가 많으면 좋은 걸 알게 되셨죠? 그럼, 모든 AF 포인트가 크로스면 왜 좋은 걸까요?
AF는 자동 초점을 뜻하고 크로스는 AF의 생김새를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쉬워집니다.

예전의 DSLR 카메라는 AF 포인트 중 크로스 포인트가 몇 개 없었고 세로 선의 위주의 AF 포인트로 구성됐습니다. 세로 방향의 AF 포인트는 같은 세로 방향에 초점을 잡지 못합니다.

EOS 80D는 바로 이런 고민이 필요 없는 DSLR 카메라입니다.

45개의 모든 AF 포인트가 크로스로 구성되어 사람 눈의 가로, TV 모서리 테두리의 세로 등 선만 있다면 무엇이든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장면을 만나더라도 AF는 카메라에 맡기고 셔터 버튼만 누르면 됩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6.3 / Tv: 1/320s / ISO: 100 /
핸드헬드

- 하얀색이면서 선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 않은 피사체라도 AF의 한 가지만 기억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바로 피사체에는 거의 대부분 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 위 사진은 유리 너머의 조각상의 눈매에 초점을 실행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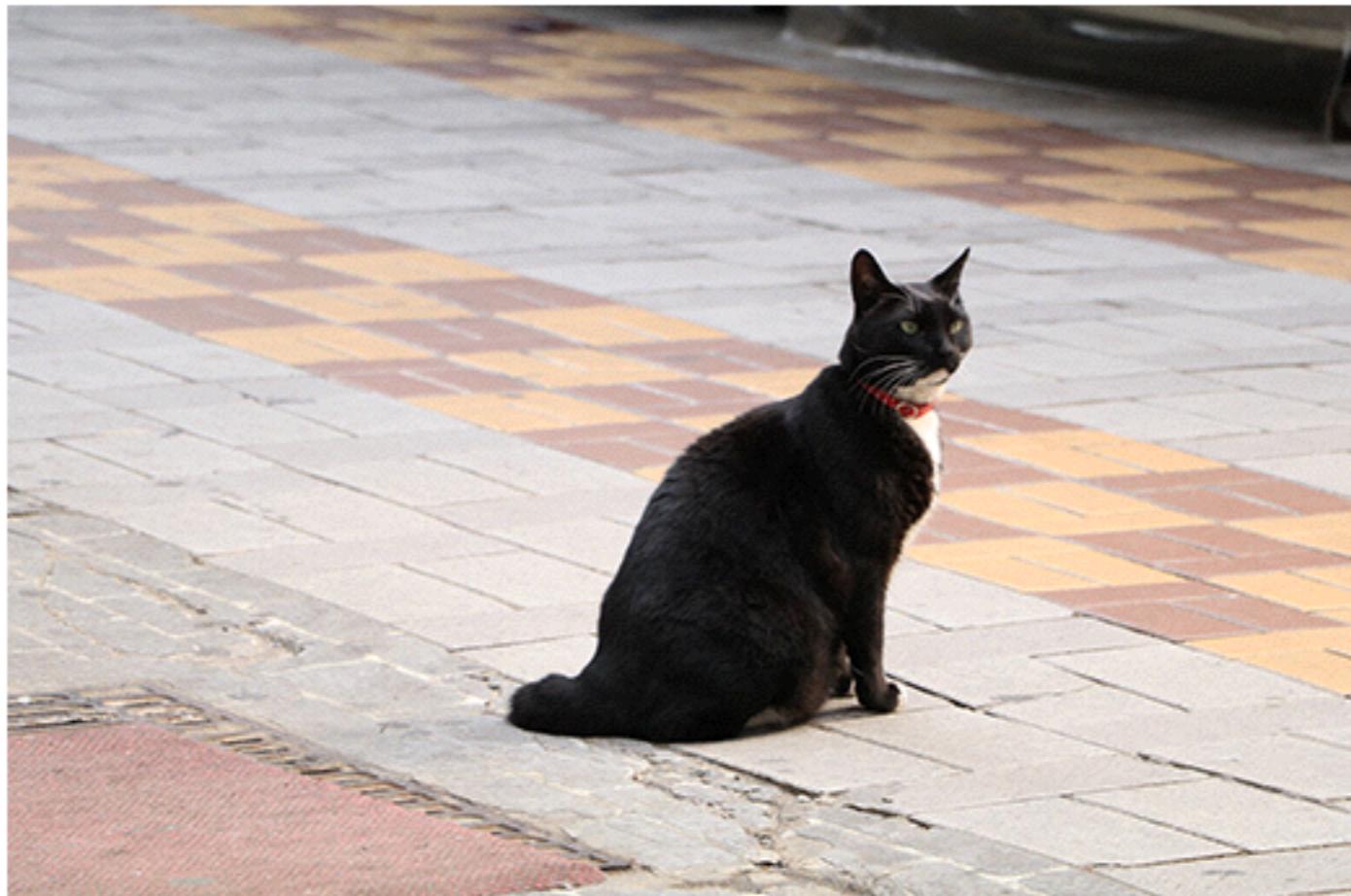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6.3 / Tv: 1/250s / ISO: 100 /
핸드헬드

오토바이 미러 너머의 전등을
촬영한 사진입니다.

전등을 자세히 보면 세로 방향의
선이 있고 그곳에 초점을 잡고
촬영했습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6.3 / Tv: 1/250s / ISO: 100 /
핸드헬드

고양이의 몸에 초점을 실행하면 어두운 환경에선 초점을 못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고양이 얼굴의 눈에 맞추는 편이 좋습니다. 이 사진은 강한 빛을 받은 고양이의 몸에 그림자가 지는 걸 보고 그림자 쪽에 초점을 실행해서 촬영했습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TIP

AF가 몰라보는 장면은 바로 ‘면’입니다

1)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 초점을 맞출 수 없던 이유는 바로 ‘선’이 없고 ‘면’만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조그마한 구름이 지나간다면

구름 테두리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2) 노트에도 ‘면’과 ‘선’이 있습니다.

‘면’이 아닌 글씨의 ‘선’에 초점을 맞추면

단숨에 촬영할 수 있습니다.

찍고 싶은 장면이 있다면

항상 피사체의 선을 생각하며

초점을 맞춰봅시다.



*1면·‘질감이나 명암 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면

All Cross-Type 45 Point AF

3. 멈춰있는 피사체엔 ONE SHOT AF를 사용하세요

스포츠처럼 움직임이 많은 피사체를 주로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부분 장면은 멈춰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물, 풍경, 정물 등 멈춰 있는 피사체 촬영 시에는 무조건 ONE SHOT AF**를 사용하면 됩니다. 이름처럼 한번만 초점을 잡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ONE SHOT AF와 고속 연속 촬영을 조합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촬영하지 않는 이유도 첫 번째 사진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소중한 순간을 추억으로 남기기 위해 찍는 스냅 사진도 ONE SHOT AF면 충분합니다. ONE SHOT AF는 항상 설정해놓고 있으면 되고 움직이는 피사체를 만날 때만 AF 동작을 변경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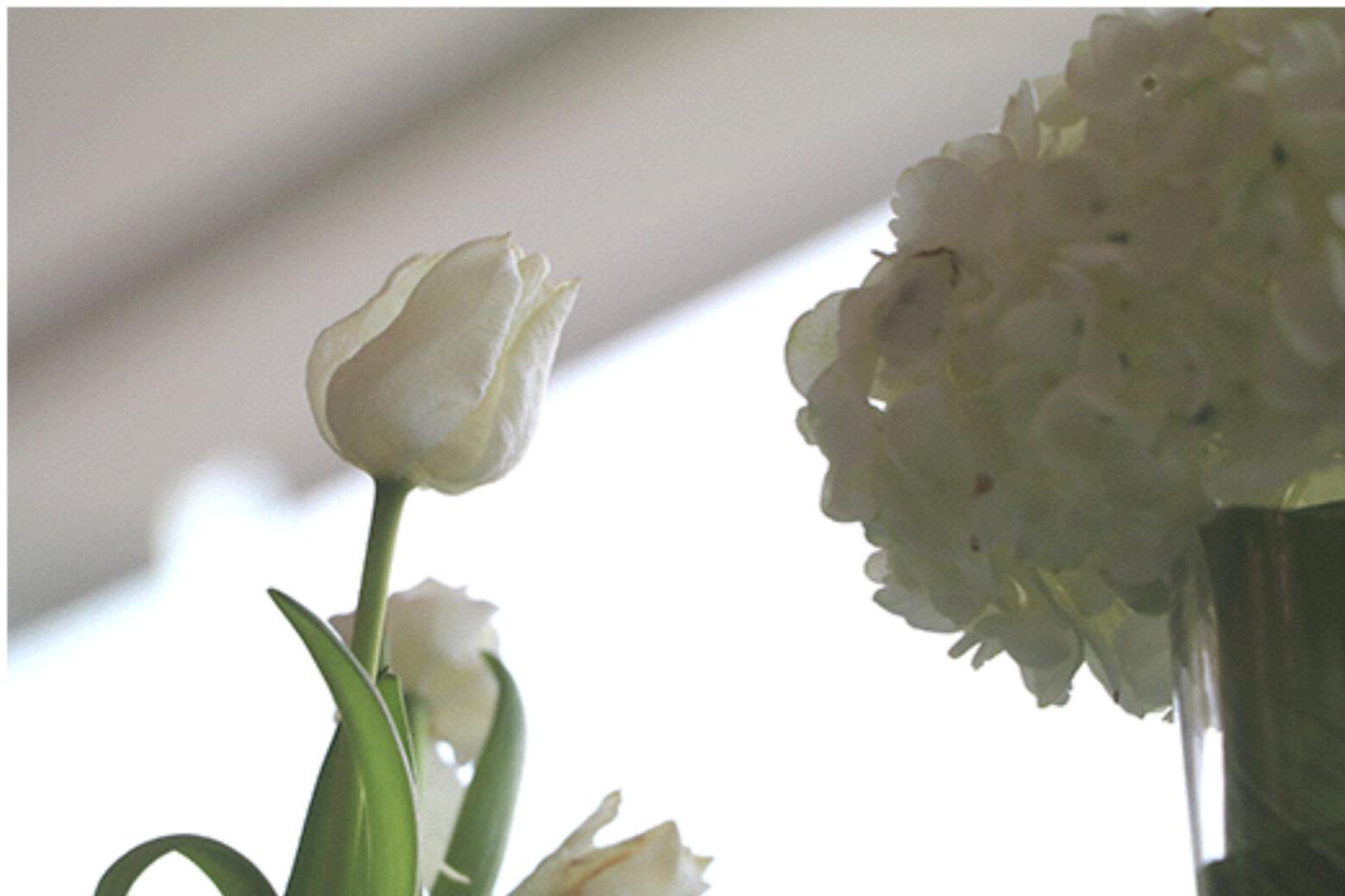
All Cross-Type 45 Point AF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6.3 / Tv: 1/320s / ISO: 100 /
핸드헬드

멈춰 있는 인물 촬영에서 많은
AF 포인트를 사용해야 할지
말지를 고민했다면, 이제부터는
1 포인트 AF를 사용하면 됩니다.
멈춰 있는 인물의 가장 좋은
포즈나 표정을 얻기 위해서는
1 포인트 AF에 고속 연속 촬영을
조합해서 사용합니다. 초점의
위치는 한 곳이며 연속해서
촬영해 베스트 컷을 얻기
위함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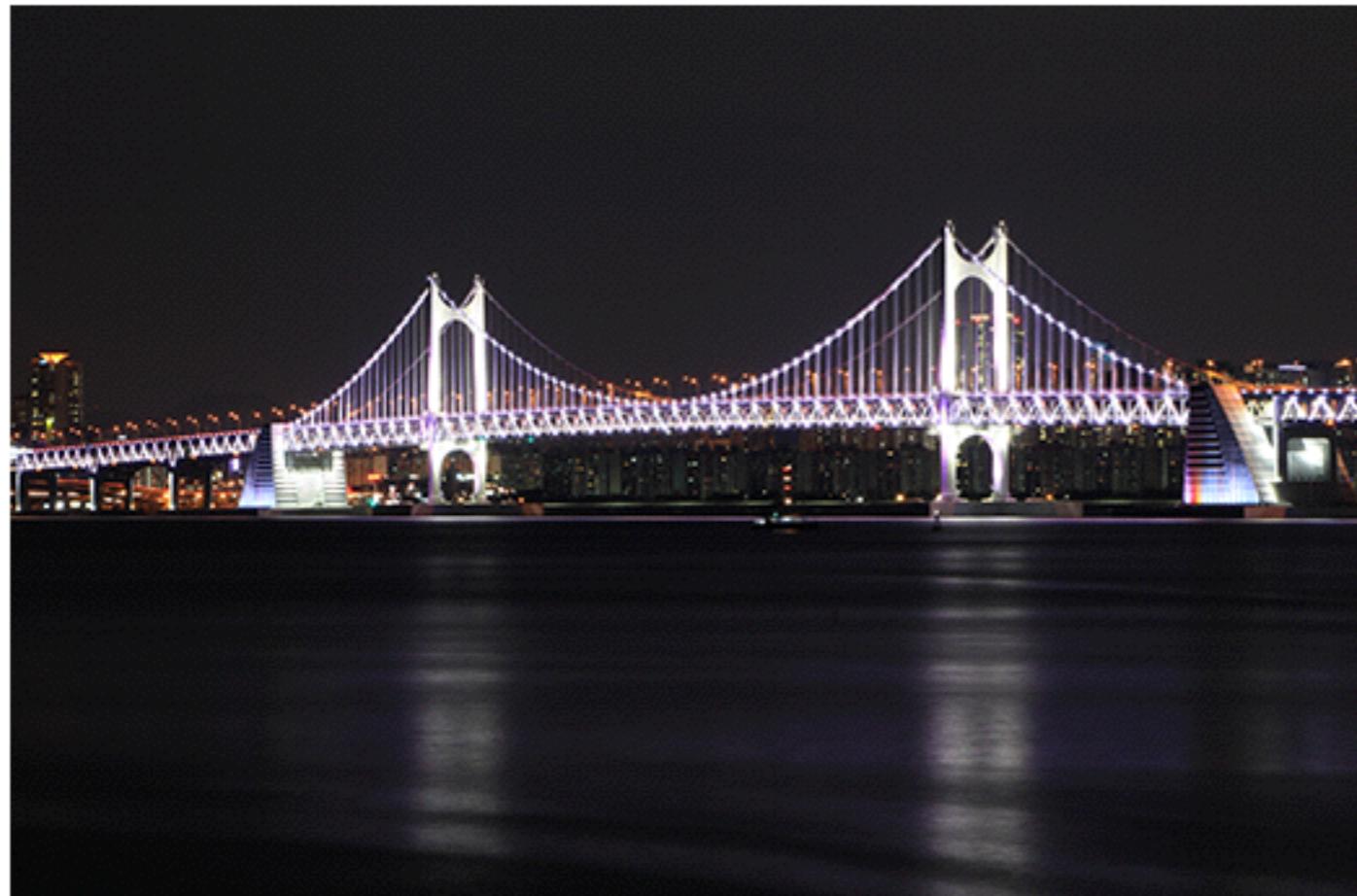
All Cross-Type 45 Point AF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6.3 / Tv: 1/320s / ISO: 100 /
핸드헬드

역광 상태에서 흰색에 가까운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도 선을
중심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 사진의 경우 **꽃잎의 테두리에**
초점을 맞추면 됩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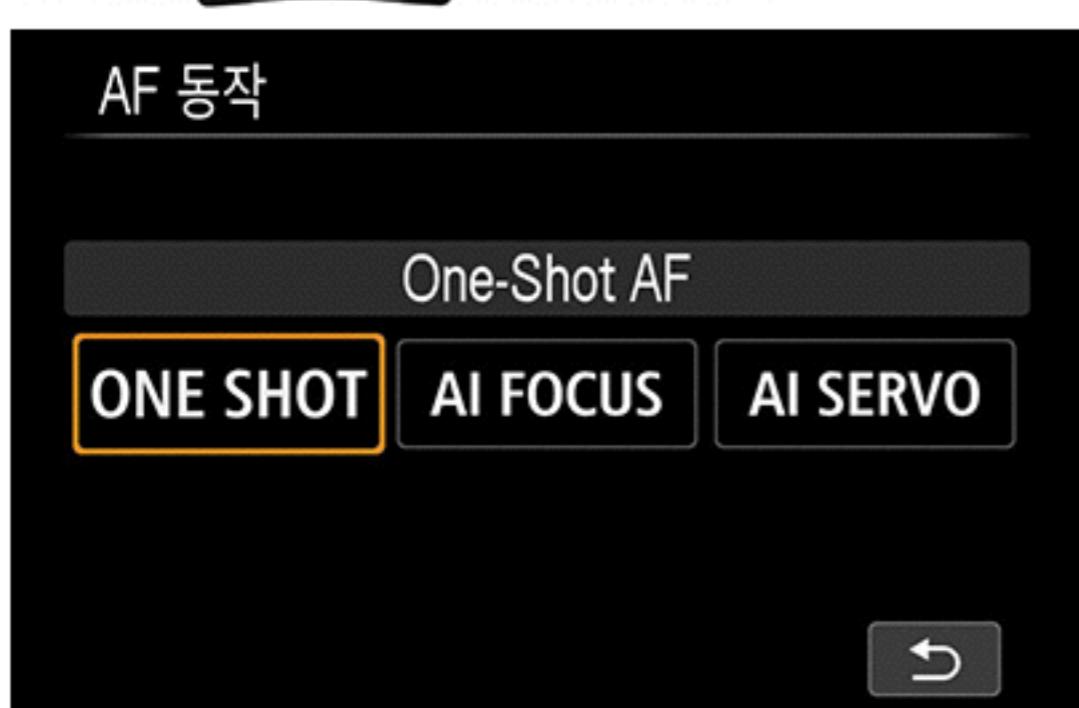


▲ EF-S 18-135mm f/3.5-5.6 IS USM / Av: f/6.3 / Tv: 1/320s / ISO: 100 /
핸드헬드

야경 촬영처럼 원거리에 있는
피사체를 촬영할 때에도 1포인트AF
로 충분합니다.

많은 포인트를 사용해도
초점을 잡는 위치는 한 곳이므로
풍경에 가까운 모든 장면은
1포인트AF로 원하는 곳에
초점을 잡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TIP

ONE SHOT AF를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1) 상단 LCD 패널 앞쪽의 왼쪽 가장자리를 보면 AF 버튼이 있습니다. 해당 버튼을 누르면 AF 동작을 ONE SHOT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2) 한 장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셔터 버튼을 여러 번 반누름 (반셔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초점을 더 잘 잡기 위해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 AF의 원리는 한번만 실행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All Cross-Type 45 Point AF

TIP

ONE SHOT AF를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3) 셔터 버튼을 누르면 삐빗하고 소리가 납니다. EOS 80D가 초점을 잘 잡았다고 알려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정숙한 공간에서 조용한 촬영이 필요하다면 SHOOT1 표시음 메뉴를 해제로 바꾸면 됩니다. 그럼 셔터 버튼을 눌러 초점을 잡아도 삐빗하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